

論 說

# 電氣學會誌의 使命

朴 明 鑄\*

## — 차 례 —

- |              |                |                    |
|--------------|----------------|--------------------|
| 1. 緒 論       | 3 - 1. 論 文     | 4 - 1. 論文審查의 實情    |
| 2. 電氣學會誌의 役割 | 3 - 2. Journal | 4 - 2. Journal의 審查 |
| 3. 學會誌의 內容構成 | 4. 編修委員會組織의 概要 | 5. 結 論             |

## 1. 緒 論

學會는 學會誌를 發刊하기 위해 編修에 관한 會務理事와 編修委員會를 設定하고, 學會豫算의 큰 比重을 割當하고 있다. 이는 學會誌가 學會의 性格을 가장 端的으로 表現하고, 또 時間의 地理的 制限을 받는 會員과 學會와의 接觸을 運結하는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學會誌가 發表, 討論, 對話, 知識의 交換場所인 만큼 會員으로 이루어진 雜誌라고 보건대 會員에게는 다른 어찌한 種類의 雜誌보다 學會誌는 所重하고 有益한 것이다. 따라서 學會誌의 質的, 量的 充實性은 會員의 積極的 參與의 有無에 取決된다.

1974년부터 學會가 學會誌의 紙面을 더 늘려주었고, 內容의 革新을 要求하고 있다. 이 機會에 學會誌의 編修에 대해 느낀 점, 생각할 점, 해야 할 점들을 간추려 써보고자 한다. 本學會가 더욱 發展하기 위해서는 學會誌面에서는 어떠한 施策이 必要한가를 會員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데의 參考로 提供한다.

## 2. 電氣學會誌의 役割

지난 여름 몇 種類의 外國學會誌를 製本한 끝에 가지고 있던 우리 電氣學會誌를 落卷이 있는 대로 年度別로 製本을 해 놓고 보니 무엇인가 年輪이 싸인 것 같고 특히 우리의 것이라는 데서 外國會誌보다 爱着心을 느꼈다. 혹시 筆者가 學會에서 編修일을 맡아 본다는 前提意識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었는지 모르겠다.

大韓電氣學會誌가 그림 1과 같은 表紙로 1948年 10月<sup>12</sup> 創刊號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發刊되어 왔고 現在는 隔月마다 會員에게 配布되고 있다. 그간 때로는 膜寫版으로 發刊되고, 때로는 중단이 되는 정도

# 電氣工學

## 電氣學會誌 (創刊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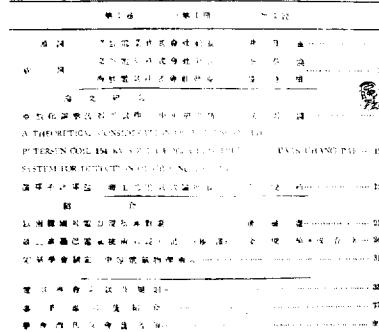


그림 1. 創刊號表紙(1948. 10)

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도 不拘하고 금일과 같은 電氣學會誌를 만들어 주신 것은 電氣學會의 歷代會長 및 役員의 끊임없는 努力의 成果라고 본다.

學會誌는 그 學會의 性格을 가장 端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雜誌의 表紙에서 부터 廣告의 內容등에 의해 그 學會의 性格을 알아볼 수 있다. 하물며 論說, 解說, 論文 등을 볼때 學會의 水準, 性格이 잘 나타난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性格, 人品 및 貫録이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學會誌가 바로 學會의 얼굴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우리 學會雜誌는 26歲의 얼굴이고, 이 얼굴에는 여러 先輩의 努力의 발자취가 历히 나타나고 있다.

大學電氣學會는 年中行事로 支部大會, 講演會, 見學會, 研究發表會, 理事會 등의 많은 活動을 通하여 會員과 接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活動에 參加할 수

\* 정회원 : 서울工大 教授(當學會 編修理事 工學博士)

있는 會員의 數는 地理的, 時間的 制約에서 自然的으로 限定된다. 이 制約에 구애없이 會員과 學會를 直接連結시킬 수 있는 役割를 하는 것이 바로 學會誌이다.

### 3. 學會誌의 內容構成

너무 敏感하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學會雜誌는 雜誌치고는 人氣없는 편이다”. “學術論文만 있어 읽을 것이 없다”. “힘든 것만掲載되는 雜誌에 감히 投稿해 내겠는가?” 등등 말씀하시는 會員들이 있는 것은 現在의 學會雜誌로서는 수긍되는 點이 없지 않아 있다. 會員의 소리는 會誌가 보다 잘되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의 하나의 자극이고 “만사 괜찮다” “學會雜誌란 그런거지”라는 소리 보다는 고마운 것이다. 學會雜誌는 大衆雜誌가 될 수 있으며 興味本位의 編修는 있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工學의 時代潮流에 따르는 教養學術이掲載되는 會員의 技術雜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주어지는 雜誌”라는 概念보다 會員의 希望, 意見, 批判을 가지고 각자가 編修에 自進參加하여야 하는 “會員의 雜誌”가 되어야 하겠다.

電氣學會雜誌의 內容構成은 크게 나누어 論文과 Journal로 區分되고 있다.

#### 3-1. 論 文

電氣學會가 會員을 위한 論文 혹은 資料 등을 발표하는 場所를 提供하는 것은 學會로서는 가장 큰 事業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學術, 技術에 寄與하는 새로운 研究結果 및 높은 會員의 參考가 되는 確實한 資料를 수록하여 그 성격은,

- 1) 獨創의인 理論, 새로운 研究結果, 새 研究方法 등의 解析
  - 2) 종래 未完成으로 된 理論 또는 實驗의 补完 또는 擴張
  - 3) 종래의 諸說의 系統的 整理
  - 4) 技術의으로 새로운 것
  - 5) 學術上 또는 技術上 현재 특히 注目되어 있는 事項의 綜合的 報告
- 등이고, 讀者를 信賴시킬만한 充分한 確實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

#### 3-2. Journal

學會는 廣範圍한 電氣技術全般을 cover하는 綜合의 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學會誌의 Journal은 必然적으로 電力, 電子, 物性, 制御 및 情報를 對象으로 하는 內容을 가지는 論說, 技術解說, 技術報告, 講演, 講座 및 座談會記事等이 되고, 여기에 요구되는 絶對的條件은 그때 그때의 時期에 알맞는 이어야 할 것이다.

最近의 科學技術의 進步는 顯著하고 注目할만한 것

이 數多하다. 갓 學校에서 배운 知識, 自己만 알고 있는 知識을 결여지고 一生涯를 지내려고 하는 時代는 옛날 이야기이고, 나날이 變遷하는 新로운 知識의吸收 없이는 來日의 將來를 펼쳐 맞이할 수 없다. 未來學者인 Kann은 “今日의 技術者가 가지고 있는 科學知識의 50%는 10년 經過하면 全然 時代에 뛰어진다”고 말하였다는데, 實제는 10년이 아니라 5년, 3년내에 無用之物이 되는 時代가 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Journal이 必要하고 知識交換의 廣場이 바로 學會誌라고 본다. 新聞은 讀者에 情報를 提供하는 동시에 輿論을 모아 文化水準을 높이는 使命을 가지나, Journal에 있어서는 會員의 누구나가 直接 이 使命達成에 參加할 수 있는 點이 新聞의 경우와 다르다. 이러한 意味에서 會員의 積極的 參與에서 會員의 最大公約數를 얻을 수 있는 Journal이 되어야 하겠다.

### 4. 編修委員會 組織의 概要

會員들이 投稿한 貴重한 論文, Journal에 대해 學會는 즉 編修事務는 細心한 注意와 最大의 公正을 기울여 投稿者の 信賴를 얻는데 至上の 目標를 세워야 한다. 學會는 編修委員會를 設置하고 委員會規程을 通過시킨바 있다<sup>2)</sup>. 따라서 編修事務는 이 規程에 準據하여 遂行한다. 編修委員會는 論文과 論文 이외의 記事 즉 Journal에 대한 編修를 다루고 그 分野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                |                |
|----------------|----------------|
| 1. 電氣物理        | 6. 電氣應用        |
| 2. 回路 및 System | 7. 電動力應用       |
| 3. 電氣機器        | 8. 制御計測        |
| 4. 電力          | 9. Electronics |
| 5. 材料          | 10. 情報工學       |

本委員會는 委員長 1名, 副委員長 2名 및 10名의 委員으로 構成되고 있다.

#### 4-1. 論文審查의 實情

論文審查委員은 編修委員會에서 그 論文內容에 가장 가까운 專門分野에서 2名을 選出하여 審查를 依頼하게 된다. 論文이 投稿되어 “掲載”, “返送”的 決定이 될 때 까지의 process는 그림 2에 표시된다.

만일 그 論文에 아무런 問題가 없으면 論文의 接受先着順으로 5件, 1件當 5페이지를 計定하여 學會誌에掲載된다.掲載 論文의 計定한 5페이지를 超過할 경우의 超過量에 대해 또 會着順位 5位 이하의 경우 그 雜誌에 꼭掲載하려면 全페이지에 대해 著者負擔이된다.

#### 4-2. Journal 審查

Journal의 경우는 編修會에서 執筆依頼하든가 또는 會員의 自進投稿를 기다리고 있다. 모여든 原稿는 編

修委員들의 충분한 檢討후에 掲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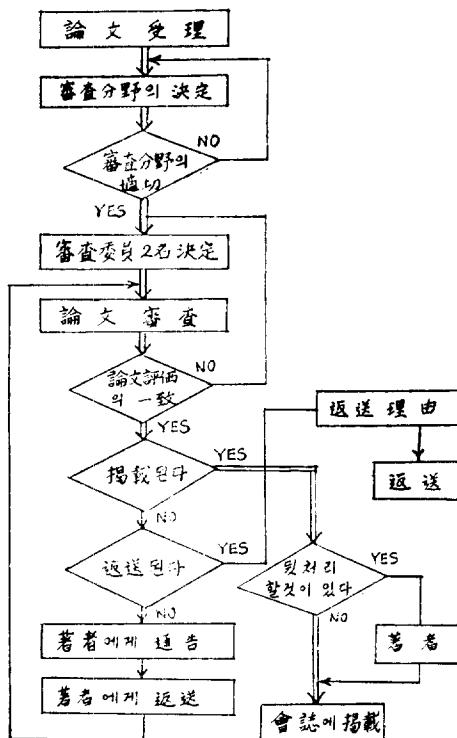


그림 2. 論文審査의 process

## 5. 結論

本學會誌가 親密感을 주며 有益한 會誌로 成長하여 學會誌의 使命을 다 하려면 아직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금후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 열거한다.

(1) 論文, Journal의 量的增加: 投稿件數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研究活動 또는 技術知識의 交換이 活潑하다는 것이 되겠다. 특히 Journal의 件數의 증가는 學會와 會員간을 연결하는 역할에 큰 도움을 준다. 바라건데, 投稿件數가 많고 質的向上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美國 I.E.E.E의 Spectrum과 Transaction, 日本의 電氣學會雜誌와 電氣學會論文集같이 우리 學會誌도 Journal과 論文의 分離刊行이 되었으면 한다.

(2) 讀者の吸收: 論文 Journal의 編收가 많고 質的으로 優秀하드라도 讀者 없는 會誌는 그 使命이 消失될 것이다. 執筆者は 讀者가 파고 들어가理解할 수 있는 表現方法이 아쉽다. 勿論 專門技術의 表現인 만큼 여러가지 隘路가 있다. 그러나 自己業績의 發表, 自己知識의 傳達이라 보건데 많은 讀者를 吸收하려고 함은當然하다. 內容에 지장이 없으면 될 수 있는 限界기 첨도록 만든記事가 좋은 것이 될 것이다.

(3) 會誌內容의 改善: 市街를 다니면 생각나는 점이 있다. 옛부터 있는 거리는 道路도 좁고, 建物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 周邊에 생긴 거리는 區劃整理도 잘되어 있고 근사한 建物이 서 있어 보기 좋다. 進步變革이 심한 오늘날 多樣性 있는 體制가 要望된다. 會誌內容의 改善은 恒常 이루어져야 한다. 論文의 重要視, 雜誌의 許容두께, 分野에 대한 掲載均衡, 그리고 時期에 알맞는 題目選擇 등이 必要하다.

## 参考文獻

- (1) 大韓電氣學會誌 第1卷 第1號, 1948. 10
- (2) 大韓電氣學會誌 Vol. 22 No. 4 1973 p.55